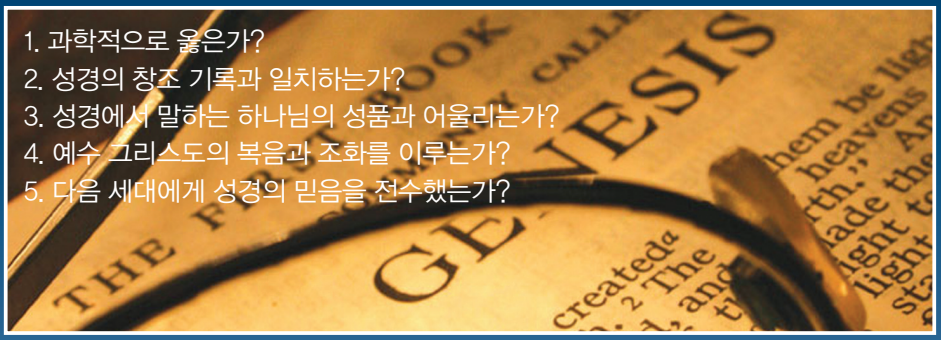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11 11 2015

유신론적 진화론 4



점진적 창조론

수십억 년 동안 창조와 멸종의 반복?

점진적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아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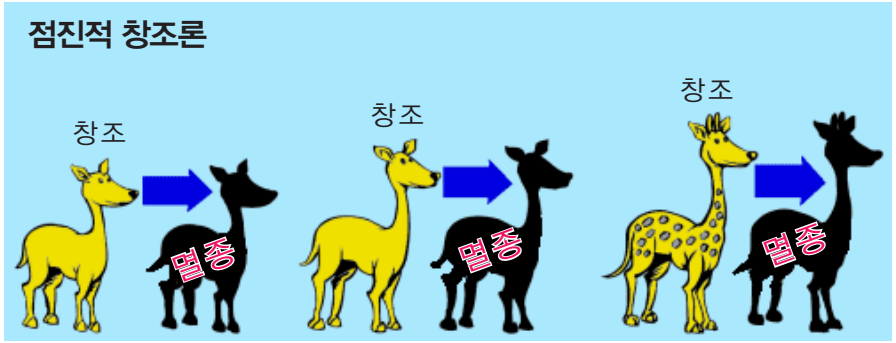
1. 우주는 수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 창조되었다.

2. 하나님은 수십억 년의 기간에 걸쳐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3. 하나님이 수십억 년 동안 동물화석들을 죽인 것은 인간의 죄악 이전에 발생했으며, 화석들은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난 멸종의 결과다.

4. 창세기 홍수는 전 지구적이 아닌 지역적 사건이다.

점진적 창조론은 1990년 초에 캐나다 천문학자인 휴 로스(Hugh Ross)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말하면서도 과거 역사에 대하여 아는 것은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현대 과학이라는 표현은 사실 '진화론적 해석'을 의미한다. '진화론자'나 '유신론적 진화론자'나 공통



된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이와 같이 '진화론=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글을 읽으면 저자가 진화론을 옳다고 하는 것인지 과학을 옳다고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점진적 창조론의 과학적 문제점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식의 "지질시대"를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상에 지질시대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질시대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진화론의 신뢰 하에서 화석들을 책에다 진화 순서로 모아놓은 상상의 작품이다. 지질시대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일부러 이와 같은 이론을 만들 필요가 없다.

앞서 다룬 것처럼 점진적 창조론이란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를 거치며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셨다는 타협이론이다. 이 이론은 진화론자들 가운데 전이 화석과 진화의 메커니즘이 부재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등장했다. 즉 진화론자들이 포기한 부분만큼만 우리도 바꾸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의 속성상 과학자의 기존 해석이 바뀌면 자신도 다시 그 이론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으로 인간을 닮은 화석들이 로스가 생각한 현대인 (약 40,000년)의 나이보다 더 오래되게 측정되자, 로스를 포함해서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이 원인들은 영이 없는 그래서 구원도 필요없는 아담 이전의 피조물의 화석이라고 주장했다. 즉 과학자들의 해석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도 새로운 해석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마는 것이다.

이는 성경적 문제점을 함께 유발한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이와 같이 오랫동안 창조와 멸종을 반복했다는 기록이나 분위기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창세기 1장 만이 아니다. 그 이후의 성경 전체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점진적 창조론은 이와 같이 성경에 없는 창조 기록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결코 조화로울 수 없다.

점진적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수십억 년 동안 인위적으로 수없이 멸종을 시키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과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멸종 과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이유나 가능성이 있을까? 휴 로스는 "죄로부터 해방을 기대하는 피조물의 신음은 150억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수많은 별들에 영향을 주어왔다"(Hugh Ross, Facts for Faith, Issue 8, 2002)고 말하며 결코 성경에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이는 진화론적 상상의 과정을 하나님의 성품보다 우위에 놓은 위험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동물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피와 비교할 순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속죄를 위해 사용되었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생명의 상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짓기도 전에 그렇게 많은 동물을 죽이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은 이들 주장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까?

당연히 점진적 창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본래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을 변형시킬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피흘림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므로 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며, 결국 죄를 사하시기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의미를 상실시킬 뿐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된 천국의 모습도 희미하게 만든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진화론의 산물인 유인원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을 애매하게 함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역시

애매하게 만든다. 아울러 엿새 동안 창조를 부정함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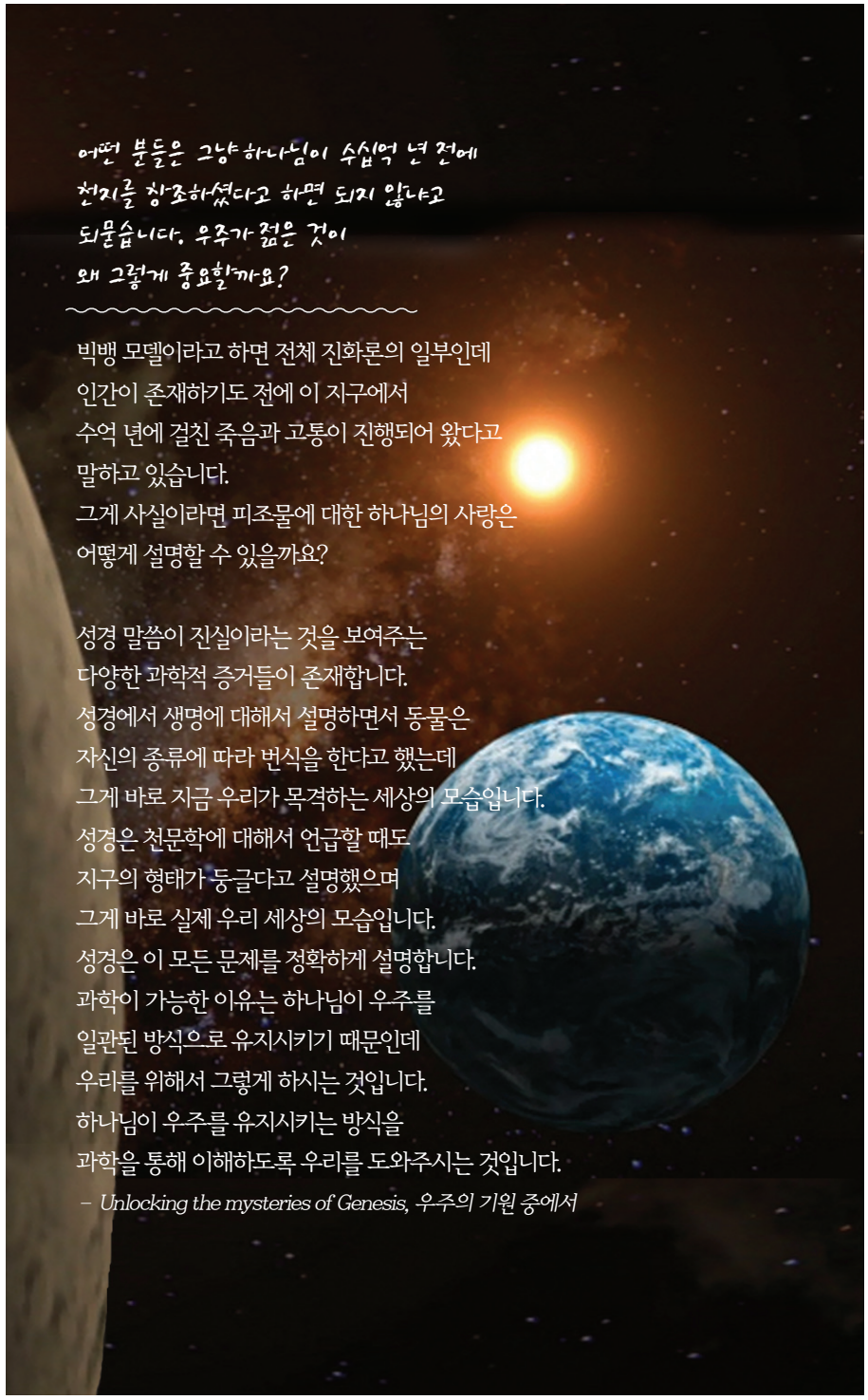
점진적 창조론자뿐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의 공통적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이론이 성경 전체에서 뒷받침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 뒤에 기록된 성경 역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억지로 믿어야 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성경은 언제나 창조될 당시 처음이 좋았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었고(창 3:14, 16, 17),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없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범죄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한다(롬 5:12, 16–18; 고전 15:45, 47).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과거, 현재, 미래, 즉 우리가 겪었던,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유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일관된 자세를 유지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이유다. 여러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며, 전지전능하며, 처음과 나중인 분의 간섭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바꿀 경우 역사의 다른 곳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점진적 창조론은 진화론과 창세기를 타협한 유신론적 진화론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미국의 교회와 대학교 기독교 단체에서 점진적 창조론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일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다음 세대가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거의 모든 젊은 세대를 잃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한국도 많은 교회와 학원 선교 단체에서 이 이론을 소개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아래는 이 글의 요약이다.

1. 과학적으로 옳은가? No
2.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가? No
3.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 No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No
5.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믿음을 전수했는가? No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공룡의 부드러운 조직, 그것은 진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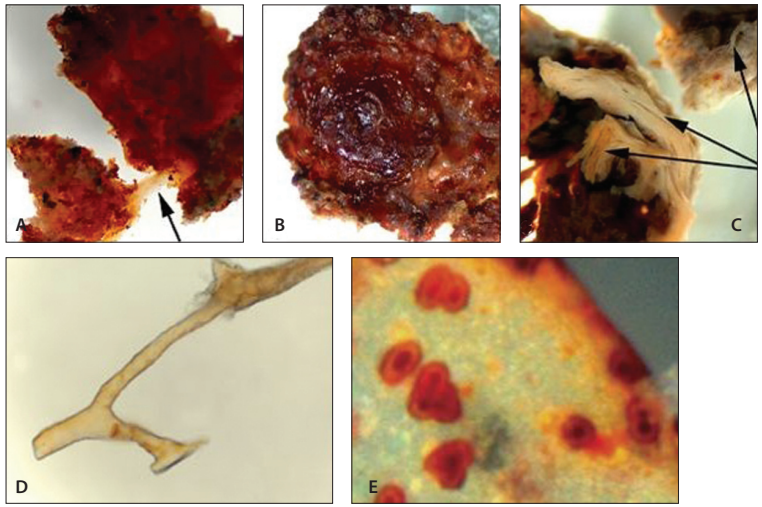
고생물학자 메리 슈바이처가 발견한 공룡화석 내부의 부드러운 혈관, 단백질, 다양한 혈액 세포들과 심지어 DNA는 학계로부터 극심한 의심을 받았다. 이러한 생물학적 구조와 고분자 화합물들이 수만 년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수백만 년 동안 보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 확립된 과학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이 존재하는가?

과학자들은 슈바이처의 발견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했다. 지난 15년간 공룡 화석에서 발견된 연부조직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들로는, 화석 채굴 시 또는 실험실에서 일어난 오염, 박테리아로 인해 생긴 혈관 모양, 그리고 조직으로부터 나온 단백질들이 실제로는 단지 통계학적 오류라고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반대에 답변하기 위한 노력으로, 슈바이처의 연구팀은 무균 상태로 화석을 채취했고, 독립된 제 3자를 고용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했다. 그들은 연부조직이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생긴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박테리아는 척추동물의 혈관 모양의 부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며, 공룡의 뼈에서 발견되는 콜라겐 종류를 생산하지도 않는다.

이 주제는 슈바이처의 공룡 조직에서 투명한 콜라겐 흔적을 발견한 하버드 의대의 존 아사라(John Asara)가 그의 데이타를 온라인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정도로 많은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팔로 알토의 연구자들은 그 데이타를 다시 분석해서 Journal of Proteome Research 에 온라인으로 출판했다. 그들은 아사라가 최초로 얻은 일곱 개의 콜라겐 서열이 명백하게 적절하다는 것을 다른 통계학적, 생명정보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했다. 놀랍게도 모든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공룡에서 나온 부드러운 조직이 한때 살아있던 숙주로부터 나온 실제 생물학적 부산물임을 가리킨다.

이 수많은 세월동안 보존되었다고 생각되는 생명체에서 발견된 고분자 유기화합물과 혈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존재한다. 첫째, 아마도 그 부드러운 조직은 실제 유기 화합물이 아닌 어떤 실수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



티라노사우르스의 뼈 속에서 발견된 부드러운 조직들(A,B,C), 혈관(D) 및 혈액세포들(E)

렇지만 그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개연성 있는 설명들은 줄어들고 있다. 둘째, 부드러운 조직을 수천만 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자연적 과정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 오류이며, 실험적 증거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셋째, 아마도 그 연부조직과 그것을 감싸고 있던 퇴적암 층은 수백만년이 아닌 단지 수천 년 되었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공룡의 화석에서 발견된 부드러운 조직은 최소한 수백만 년이 필요한 진화론적 패러다임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룡의 혈액 세포들과 혈관들은 인간과 공룡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같은 날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 성경적 역사관과는 완벽히 들어맞는다.

Brian Thomas, Dinosaur soft tissues: They're real, ICR (Article posted on August 11, 2009.) 번역 : 이충현

ACT News

창조과학탐사 / 세미나 / 한국방문

창조과학 탐사

은혜의 빛 교회

지난 9월 8-11일 은혜의 빛 교회(담임목사 강대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본 교회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13개 교회의 '어성경이 읽어지네'(대표 이애실) 전문 강사 팀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에 임하셨고, 질문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성경 팀은 창조과학선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과 중국에서도 전문 강사팀과 학생들에게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은혜의빛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지난 9월 14-17일 뉴저지 초대교회(담임목사 한규삼)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이 3년 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위험성을 다루며 다음 세대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심어주며 전수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습니다.

북가주 목회자

지난 9월21-24일 22개 교회 북가주 목회자 내외분께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앞서 은혜의 빛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성경이 읽어지네' 팀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성애를 다루며 이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데 연결이 된다는 데에 공감하셨습니다. 내년 2세들을 위한 창조과학탐사에 대한 계획도 의논되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지난 9월 25일-10월 2일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인중)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매년 두 번씩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이 8번째 입니다. 매년 그렇듯이 참석자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부모들 뿐 아니라 자녀들이 오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뉴저지초대교회

17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오는 2016년 1월4-7일 나흘간 17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아래와 같이 출발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2016년 1월 4-7일(월-목)

경유지: LA 출발- Mojave Desert- Grand Canyon- Bryce Canyon- Zion Canyon- LA 도착

참가 자격: 미국에 유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도: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석사)

참가비: $50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세미나

시카고 베들레헴교회

지난 10월 3-4일 시카고 베들레헴교회(담임목사 이상규)에서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재만 선교사가 인도했습니다. 한국에 불고있는 유신론적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 동성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주제들이 모두 동떨어진 것이 아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성경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가주 교역자

오렌지 가나안 교회, 가든 그로브 새로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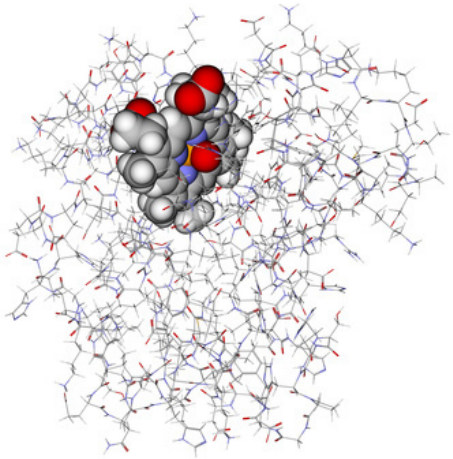
지난 9월 17일 오렌지 가나안 교회, 9월 18일 가든 그로브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노휘성 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두 교회 모두 '창세기'를 주제로 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기원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해소하고 성경적 창조관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성도님들과 사역자 분들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 성경을 진화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회장 한국, 대만, 일본, 홍콩 방문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회장은 10월 24일-11월 30일 5주간 한국, 대만, 일본, 홍콩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학교와 교회 강의, 방송, 모임 등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와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단백질은 우연한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헤모글로빈의 입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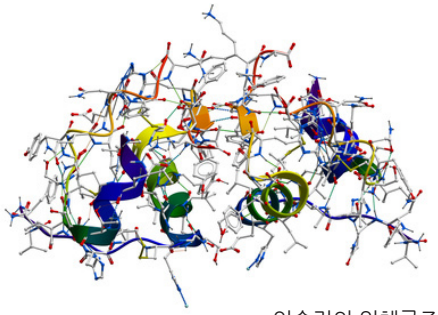
세포에서 인간의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구성과 생체내 반응들은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에 의존된다. 재료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인데, 특정한 순서로 수십~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셀 수 없이 다양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되는 것이다. 머리 카락을 이루는 케라틴, 섬유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서부터 뼈, 연골, 근육, 표피 등 우리 몸 대부분을 구성한다. 그 외에도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 인슐린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 모든 생체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들, 병균을 막아주는 항체들,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들, 눈의 망막에서 광자(photon)를 인식하는 로돕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다. 사람을 이루는 단백질의 종류가 약 10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수많은 단백질들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어떻게 고유한 기능을 갖는 것일까? 진화론자들은 단백질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고 있다.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농축된 유기수프같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아미노산들이 길게 연결되는 중합반응이 일어나 원시 단백질(프로테노이드)이 생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이미 아미노산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때, 지구의 조건과 다른 전제 하에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생명체에 사용될 수도 없는 결과임을 살펴보았다. 아미노산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이론은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여 아미노산들이 자연적으로 수십~수백 개씩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넘어간다. 교과서의 진술을 보자.

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의 중합 반응이 뜨겁고 건조한 화산의 가장자리나 뜨거운 원시 바다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중략) 이렇게 형성된 프로테노이드는 단백질 분자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중략) 이렇게 결합 반응에 의해 크고 복잡한 분자가 형성된 후 이들이 스스로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신체의 구성성분이나 물질대사를 촉매하는 효소 등 생명체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였다. [1]

여기서 다시 새로운 전제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지구 초기 바다가 아미노산이나 핵산 등이 농축되어 수프처럼 걸죽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또 하나, 아미노산이 중합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매우 뜨거웠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전제는 확인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가정들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세상에서 아미노산들이 길게 연결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곳은 단 한 곳 밖에 없다. 세포 안에서이다. 그 외 어디서도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이 주어질지라도 저절로 중합되어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고분자 덩어리로 연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험실에서조차 정제된 아미노산을 수 시간동안 인위적인 고온(170℃)에서 가열해야 겨우 중합체를 얻을 수 있으며, 시간과 조건을 잘 맞추지 않으면 고온에서 모두 파괴되고 만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실험실에서 중합된 유사 단백질은 라세미 화합물일 뿐 아니라 특정 순서로 배열된 것도 아니어서 생명체에 사용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슐린의 입체구조

아미노산이 저절로 길게 결합되는 일이 자연에서 일어나지도 않지만, 독특한 기능을 하는 수만 종의 단백질들이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 조직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낸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단백질들이 독특한 입체구조–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가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2]. 이러한 일은 물질들을 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치밀하고 방대하게 조직화하는 고도의 정밀한 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설계의 산물이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을 아주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물질의 구성 요소를 아시고, 구조를 파악하고 계시며, 또한 그 질적인 변화를 순간적으로 일으킬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인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기적을 읽을 때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기사를 읽을 때 전혀 충돌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요1:3) 때문이다. 더불어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실 때, 물질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단백질 분자들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즉각 갖춰졌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노휘성 / 과학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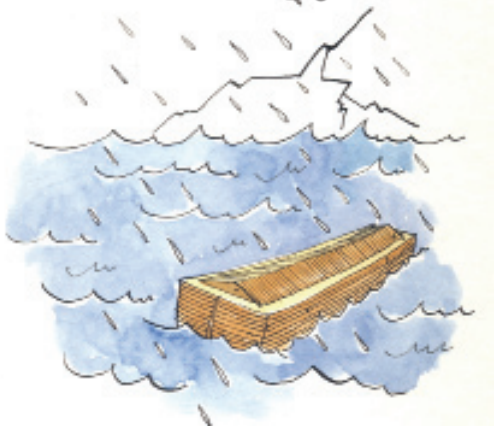
[1] 안태인 외 11인(2011),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22

[2] http://mulli2.kps.or.kr/~pht/10-3/010309.htm

창조과학탐사

간증 / 뉴저지 온누리 교회

6/16-6/19, 2015



홍수로 모두 쓸어버리신 후의 모습도 이렇게 멋진데 처음 창조 하셨을 때는 어떠했을지... 이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김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여행중에 강연을 들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들 요세미티 밸리를 지날 때 "할렐루야"찬양이 나오던 그 순간 그 감동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 한호진 〈뉴저지온누리교회〉

막연한 창조주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 임자영 〈뉴저지온누리교회〉

노아홍수, 옵기, 습윤사막 등 퍼즐들이 선교사님의 설명을 통해 하나하나 맞추어져 재미있었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써있던 것에 놀라웠습니다.
– 백설아 〈뉴저지온누리교회〉

창조과학탐사가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잡고있는 진화론을 씻겨주는 것 같아 기쁘고 감사 드립니다. Rejoice 성경말씀으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 김지선 〈뉴저지온누리교회〉

오랜 시간동안 진리인 것처럼 배워왔던 진화론의 사고를 벗어 날 수 있었던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 정영신 〈뉴저지온누리교회〉

나만 아는 지식 또는 지혜가 아닌 자녀와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조경화 〈뉴저지온누리교회〉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5 / 2016 ACT Schedule*

10/22-11/15	한국 방문 (이재만)
11/1	창조과학세미나 (LA온누리교회), 노휘성
11/13	창조과학세미나 (가든그로브새로운교회), 노휘성
11/16-20	대만 방문 (이재만)
11/21-25	일본 방문 (이재만)
11/26-30	홍콩 방문 (이재만)
12/20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한빛교회), 이재만
12/21	Anza Borrego탐사 (한빛교회), 이재만
1/1-2/17	제 7 차ITCM 훈련
1/4-7	창조과학탐사 (17차 유학생), 이재만
1/26-29	창조과학탐사 (대구참좋은교회), 이재만
2/21-27	목포사랑의교회 (이재만), 한국
3/5-6	성광교회 (이재만), 한국
3/28-31	창조과학탐사 (남가주노회), 이재만
4/2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4/5-12	창조과학탐사 (서울충신교회), 이재만
4/13-19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4/20-30	창조과학탐사 (빛나교회), 이재만
5/2-10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13-19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19-26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